운동장



로그라인

서로의 존재는 의식하지만 서로에게 쉽게 다가갈 순 없는 두 여자의 이야기

기획의도

인간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이러한 영향은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사랑과 위로를 준다. 이번 이야기는 타인에게 받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타인에게는 따뜻함을 건 낼 수 있는 인간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담고자 한다. 감정은 고립된 개인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를 통해전이되고 순환된다. 타인에게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패키징

	부서	이름	전화번호	거주 지역	학원생여부
1	각본/연출/조명	정지유		서울시 금천구	0
2	PD/편집	차민제		서울시 영등포구	х
3	조연출	서동화		서울시 강동구	0
4	촬영	현명한		경기도 광주시	0
5	촬영 보조	박은호		경기도 광주시	х
6	음향	이은재		경기도 광명시	0
7	하늘	이현서		서울시 마포구	0
8	미소	권예진		서울시 구로구	Х
9	지나가는 학생 1	이윤서		서울시 영등포구	Х
10	지나가는 학생 2	차민제		서울시 영등포구	Х

촬영

B SET

카메라: Sony A7S II

(APS Super 35mm 설정 적용, 4K 및 최대 120프레임 촬영 지원)

렌즈: 삼양 E 14mm(크롭 환산 21mm), 삼양 E 50mm(크롭 환산 75mm)

(크롭 바디 전용 렌즈여서 카메라에서 APS Super 35mm 설정하지 않으면 비네팅 생김)

삼각대: Teris 트라이포드

타스캠: Tascam DR60D Mk2

마이크: HTDZ HT-81A, 윈드 스크린

붐대: 로데 RODE Boompole



장소 [신기록]



주제 [오후 3시, 봄날]



장소 [신기록]

■ 시놉시스

한 겨울, 집 근처 운동장에서 경찰 공무원 체력시험을 준비하는 소진은 철봉에 매달려있는 현숙이 신경 쓰인다.

■ 줄거리

< 신기록>은 서로를 알지 못하는 두 여자가 운동장에서 만나는 이야기이다. 경찰 공무원 준비생 소진은 체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을 뛴다. 그녀가 훈련장을 벗어나 학교 운동장으로 향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의 공간을 허락 없이 침범해 오는 어느 남성의 구애 활동 때문이다. 구애와 폭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소진은 칼같이 거절할 수도 없다. 소진의 동생은 그녀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거절하기'를 추천한다. 여느 때와 같이 운동장에서 훈련을 하던 날, 철봉 매달리기를 하던 현숙을 보게 된다. 현숙은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피해 당사자이다. 두 사람은 서로가 가진 경험이나 사연은 알지 못하지만 멀리서 서로를 지켜보고, 알아본다. (출처- 다큰아씨들 허지예 감독)



주제 [오후 3시, 봄날]

■ 시놉시스

사람들이 이동을 위해 잠시 머무는 지하철역, 조송과 남득은 지하철도 타지 않고 느긋하다.

■ 줄거리

지하철 자판기 뒤에서 소변보는 노인과 건너편 승강장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두 노인이 있다. 인삼껌과 홍상즙으로부터 시작된 두 노인의 신경전은 서로를 의식하게 되고, 실없는 경쟁으로 이어진다. 홍삼노인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청년에게 핸드폰 벨소리를 바꾸어 달라고 하자 소변노인도 끼어들려고 플랫폼을 건너온다. 지하철 플랫폼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노인의 미묘한 관계와 대화를 그린 영화는 사람간의 관계와 대화 그리고 이해에 대한 영화다. 누구나 그들 나름의 소통방식이 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대화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도 된다.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면 상대의 방식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 이건 나이로 규정되는 세대간 뿐만 아니라 계층 간, 성별 간에 모두 통용되는 것이다. 서로 이해하지 않는 이들 간의 벽이 존재함과 그 벽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순간을 독특한 대화법을 설정해 간결하고도 재미있게 그린 작품이다. (출처 - 박광수)



[언니 유정]



[언니 유정]

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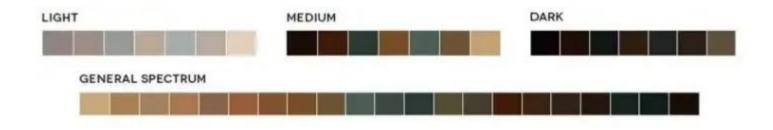


[나기의 휴식]





[하이큐]



전체적인 색감을 잡기 위한 색상표

감사합니다.